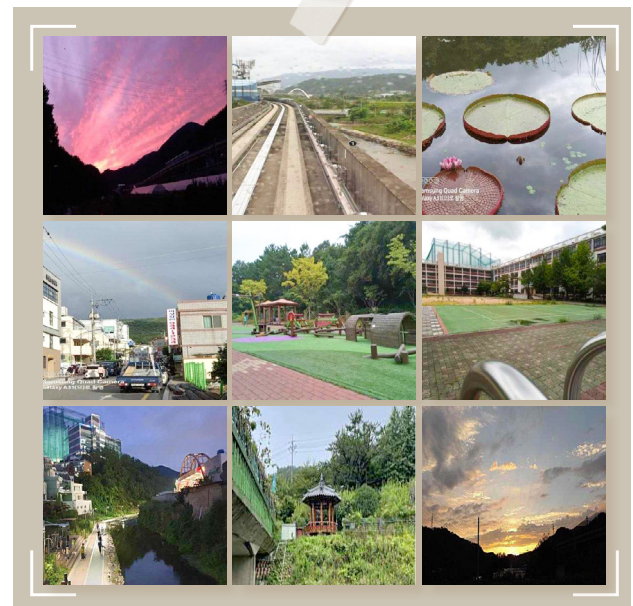


2021년 반송 할미들의 포토보이스

the 부산YMCA
반송종합사회복지관

Sun&Fun
Haeundae 반송1동행정복지센터



반송의 어르신들이
찍은 사진에 이야기를 담다.

the 부산YMCA
반송종합사회복지관

Sun&Fun
Haeundae 반송1동행정복지센터

사업명 반송 할머니들의 포토보이스

참 여 마을공리팀
주 민 (김명숙, 김화선, 박령옥, 박해옥,
조 직 박향숙, 백선자, 유미화, 이귀옥, 황영자)

지 원 해운대구, 반송1행정복지센터,
협 력 반송종합사회복지관

사 진 반송스튜디오
지 원

발행일 2021.11.26

전 화 051-749-5941(반송1동행정복지센터),
051-544-8006(반송종합사회복지관)

팩 스 051-544-3813(반송종합사회복지관)

제 작 www.디자인우진.com



반송 할미들이 반송 주민들에게

반송 주민들에게

반송 과거 사진과 현재 사진을 함께 보시죠.

정말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많은 세월이 흐른 만큼 반송도 많은 변화가
있어났어요.

지하철이요. 석대천이요...

반송을 한번 둘러보는 게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포토보이스,

· 포토보이스 활동은 반송1동 지역자원 연계 특화 프로그램입니다.

2021년 반송1동의 노인인구의 증가와 함께 코로나-19로 활동의 제약을 받아 우울감을 느끼며 적절한 취미 활동을 찾기 어려워하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반송에 대한 본인의 추억과 경험을 동네 주민들과 공유함으로써 애향심과 소속감을 고취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진행되었습니다.

· 포토보이스 프로그램은 반송1동에 30년 이상 거주하신 어르신들이 반송1동의 사진을 찍고 자신이 알고 있던 반송의 모습과 현재의 모습을 비교해보고 미래의 반송이 어떻게 변할지 생각하고 촬영한 사진으로 어르신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진행 내용

월	주제	내용
5~6월	인원 모집	반송1동에 오래 거주하신 어르신 10명 모집 반송종합사회복지관 내 '마을공리'(어르신조직)과 연계
7~10월	OT, 교육, 진행	포토보이스 활동 취지 및 OT 진행 역량강화 교육으로 반송1동의 역사 되돌아보기 스마트폰을 활용한 촬영 방법 교육
11월	성과물 공유	연말 사진전 개최 및 포토보이스 활동 내용 공유

김명숙 어머니



01. 반송의 변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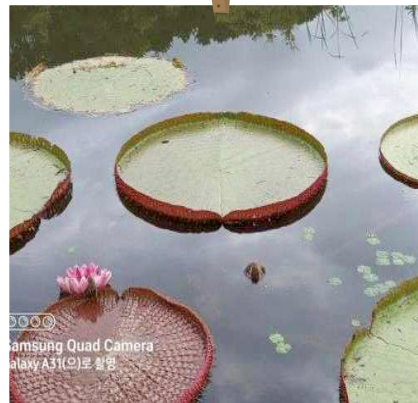
현재는 도로가 생기고 보도가 생기게 되면서 식당, 가게가 하나, 둘 늘어났고 빗기둥이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이곳은 반송의 중심을 두고 1번가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또 어떤 모습으로 변할지 알 수 없지만 지금은 밤이 되면 오색 빛이 무지갯빛처럼 반송의 거리를 밝히고 있어 아주 매력적인 곳이라 생각합니다.

02. 비오는 날 4호선 지하철

반송에 4호선이 지하철 덕분에 이곳저곳 편하게 돌아다닐 수 있게 되었죠. 특히 4호선 지하철을 타고 반여농산물시장을 오가며 모두가 창 쪽으로 많이 봐요. 전철 안에서 계절마다 산의 아름다움을 보고 석대천 물이 맑게 흐르는 모습을 바라보던 즐거운 마음이 떠올라요.



박해옥 어머니



01. 해운대 수목원 빨간 꽃잎

석대에 위치한 해운대 수목원을 아시나요? 해운대 수목원을 걷다보면 연꽃 중에서 붉은색 연꽃이 있었는데 이 꽃이 아름다워 사진을 찍었습니다. 말로만 듣던 행운의 연꽃 중 남아 있는 한 송이의 꽃을 아직 완전히 개장하지 않은 해운대 수목원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반송에도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을 볼 수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었어요.

02. 비온 뒤 무지개가 떴어요

요즘 하늘에서 보기 힘든 무지개를 오랜만에 반송에서 볼 수 있어서 찍었어요. 무지개가 얼마나 진하게 보이던지 카메라로도 잘 보였습니다. 무지개가 반송에 보인다는 건 하늘도 맑고, 공기도 맑은게 아닐까요? 무지개를 많은 사람과 함께 보고 싶어서 공유합니다.



유미화 어머니



01. 반송 꼭대기 반송공원

여기는 반송 공원입니다. 옛날에는 예비군 훈련장이었던 곳이었습니니다. 지금은 훈련장이 사라지고 이렇게 공원으로 변했어요. **손자, 손녀들과 함께 한 번씩 놀 겸 올라오는데 이렇게 좋은 곳이 반송에 있다는 게 정말 좋아요.**



02. 폐교된 추억 속 반송중학교

이 학교는 반송중학교입니다. 하지만 현재는 폐교 되어 건물만 남아 있습니다. **우리 두 아들이 이 학교를 졸업했고 아들과 함께 오랜 시간 지냈던 곳이라 추억이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학교 앞을 지날 때마다 우리 아들이 생각나서 항상 되돌아 보게 되는 곳입니다. 지금은 저의 마음속 깊은 추억으로 간직하고 있는 곳입니다.

박향숙 어머니



01. 지하철을 타고 가며 찍은 석대천

지나고 보니 드라마처럼 지나간 세월에 반송에도 많은 **변천사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지나가면 반송의 전경을 볼 수 있어 좋습니다. 반송에도 지하철이 생긴 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그 짧은 시간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났네요. 직접 걸으며 보는 것과 지하철을 타고 가며 보는 것은 또 다르더라고요.



02. 석대천을 걸으면 보이는 물레방아

많은 변화가 보이는 게 석대천인 거 같습니다. 특히, **걸을 수 있는 도로가 만들어지고 반송의 지역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많이 만들어졌어요.** 이 물레방아가 만들어진 시기는 그리 오래 되지 않았지만, 미래에 이것이 또 반송의 역사에 남게 되겠죠.

김화선 어머니



01. 우리의 별장

석대천을 건다 보면 보이는 팔각정은 많은 사람이 쉬기도 하고 우리가 맛난 것을 가져가 놀기도 하는 별장입니다. 별장으로 가는 길에는 다래나무도 좋고 공기도 좋고 물도 좋지요. 생긴 지 10년이 넘었지만, 아직 잘 있습니다. 석대천에 이런 공원이 잘 조성되어 있어 반송 주민들이 아주 좋아합니다.



02. 반송3동 공영주차장

현재는 반송3동이 반송1등과 합쳐져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향수가 남아있듯이 반송3동 공영주차장이라 이름으로 공영주차장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이것도 미래에 어떻게 바뀔지 모르지만, 옛 기억이 떠올라 찡찡합니다.

황영자 어머니



01. 반송의 커피숍

생긴 지 얼마 안 되어 가보지는 못했지만, 지하철을 타고 오가다 매번 볼 수 있습니다. 반송도 옛날보다 많이 발전했어요. 커피숍이 많이 생기고 슈퍼나 마트도 많이 생기고, 이렇게 반송이 빠르게 변하는 게 지하철 덕분인 거 같아요.



02. 반송1동 공영주차장

반송의 많은 주택에 살던 사람들이 반송을 떠나면서 빈집이 생겼어요. 빈집들을 부수고 그 자리에 주차장을 만들게 되면서 지금의 반송1동 공영주차장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주택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변했지만, 예전의 향수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미래에는 이곳이 또 어떻게 변할지 궁금하네요.

박령옥 어머니



01. 반송의 노을

반송은 정말 공기도 좋고 물도 좋은 곳이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게 노을이에요. 노을을 보면 얼마나 반송이 좋은 곳인지 알 수 있습니다. 구름과 산과 마을이 너무 보기 좋아서 찍어봤습니다. 반송에 사는 이웃과 함께 좋은 모습을 같이 보고 싶었어요. 앞으로 반송이 꼭 좋은 곳으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02. 반송1동의 유일한 시장

이 사진은 반송1동에 있는 유일한 시장이라 사진을 찍었어요. 여기서 반찬도 사고 채소도 사고 고기도 사고하는데, 요즘에는 반송에도 많은 마트가 생겨서 자주 가지는 않게 되었어요. 그래도 반송에 오랫동안 있었던 골목 시장이 반송의 역사로 남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사진을 찍게 되었어요. 요즘 아이들이 시장에 가봤을지 모르겠네요.

이귀옥 어머니



01. 도시 농부

반송1동에서 도시 농부 사업에 참여하게 되면서 직접 키웠습니다. 옛날에는 밭이 많아 이런 걸 많이 키웠었는데 최근에 키울 땅도 없고 시간도 없어 키우지 못하다가 도시 농부 사업을 하게 된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참여하게 되었어요. 저희가 무농약으로 직접 키운 작물이다 보니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더라고요.



02. 반송의 아이들

해운대 수목원에 방문하여 구경 및 사진을 찍던 도중 어린이집에서 견학을 왔었어요. 반송에는 이렇게 작은 아이들이 많이 없는데 재잘재잘하는 모습이 귀여워 사진을 찍게 되었습니다.

백선자 어머니



01. 반송의 석대천

반송의 석대천 일대를 찍은 사진입니다. 반송1동에 있는 골프장과 함께 반송의 주택, 석대천으로 이어져 있는 도보, 운동기구 등이 한 번에 잘 보이는 곳입니다. 여름에 찍은 사진인데 날씨가 좋기도 하고 하늘이 보랏빛이 보이는 게 아름다웠습니다. 이곳도 미래에 어떻게 변화가 될지 궁금한 곳입니다.



02. 반송의 하늘

하늘에 그림물감으로 색을 칠한 것처럼 예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런 하늘을 볼 수 있다는 게 정말 좋았어요. 무심코 하늘을 보다가 구름과 주변 배경이 잘 어우러져 있어 정말 좋았습니다. 나중에는 환경오염으로 볼 수 없을지도 모를 것 같아요.

